

환경부, 황함량 0.3% 저황중유 사용지역 확대

저황 중유 공급지역이 현재 서울,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대전, 군산 등 20개 도시로 확대된다.

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, 대전은 2002년 5월부터, 여주시 등 4개 지역은 7월부터, 시흥시 등 7개 지역은 10월부터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.

환경부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저황중유(황함량 0.3%) 사용지역에 13개 지역을 추가해 총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·대전시는 2002년 5월부터, 군포·청주·군산·여주시 등 4개시(1996년 예고)는 7월부터, 시흥·부천·성남·구리·평택·춘천·익산시 등 7개시(신규 추가도시)는 10월부터 황함량 0.3% 이하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.

따라서 해당지역의 공장 등에서는 기존 황함량 0.5% 중유 대신에 황함량 0.3% 중유를 사용해야 하며,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40%, 먼지는 24%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환경부는 1996년 황함량 0.3%인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나, 그 동안 대기오염도의 변화로 인해 0.3% 저황중유 사용 의무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4/ 12 >